

김지원 박사의 “학문간 교류를 통해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이루려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에 대한 논찬

장유정 박사(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yjjang@yahoo.com

I. 논문요약

본 연구 논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자들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며 학생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백석대학교가 2006년부터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 및 유럽 그리고 국내 기독교대학을 탐방하여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등의 기독교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 후,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인 기독교대학실천원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기독교학문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신앙과 학문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미나 1, 2, 3 과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기독교학문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기독교 학문 연구를 직접 수행하도록 도우며, 기독교학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학문과 전공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학부의 전공교수들이 『기독교의 이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후,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국내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연봉교수까지 확대해야 함과, 교직원들의 강압적인 참여가 아닌 내적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그리고 학문성 타월함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태도를 갖추기 위한 기독교학문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학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초지투자의 중요성과 신앙과 학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공, 글로벌 리더 지향을 통한 기독교학문의 전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 기독교대학의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독교대학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야 함과 교회, 대학공동체, 학문공동체 등을 통한 기독교학자들의 교류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II. 공헌점

기독교적 이념으로 시작되었고 예배가 있고 전도, 봉사, 섬김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기독교대학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대학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대학이라는 연구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이다. 학자의 기독교학문 연구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를 넘어 신앙에 영향을 미치며, 전공학문에 영향을 주어 학생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설명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있는 통찰에 근거한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며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석정신아카데미(기독교대학 실천원의 전신)를 설립하고 기독교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국내외 기독교대학을 탐방하는 등의 노력은 백석대학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16년 2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전공교수들에 의한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을 통해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기독교학문을 향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면서 연구자는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전 교직원이 공감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기독교대학의 교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생존인가 기독교대학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다. 기독교대학으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기독교대학 정체성 유지를 위한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에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연구자가 제안하듯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유지를 위한 국내기독교대학연합체의 구성과 기독교학자간 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백석대학교가 앞장서 그 요구에 부응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III. 논문에 대한 질문

논찬을 마무리 하면서 본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 및 제언을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1. 논문의 제목, “학문간 교류를 통해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이루려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에서 의미하는 학문간 교류의 의미와 백석대학교의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학문간 교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 2, 3 그리고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으로의 흐름의 전체적인 목적및 방향성에 대한 설명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각 세미나와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의 방향성은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아우르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이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기독교학문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는지, 실제 교육 활동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기독교학문을 향한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4. 학부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의 이해』 교재 개발을 설명하면서 연구자는 기독교에 근거한 전공수업이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복음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5.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면서 연구자는 교직원의 내적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노력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낸다.